

사적 정부

엘리자베스 앤더슨 지음 | 김종서 옮김

사용자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가?

Private Government

How Employers Rule Our Lives
(and Why We Don't Talk about It)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사적 정부

PRIVATE GOVERNMENT: How Employers Rule Our Lives (and Why We Don't Talk about It)
Copyright © 2017 by Princeton University Pres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25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rough EYA Co., Ltd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EYA Co., Ltd를 통해 Princeton University Press와 독점계약한 사단법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있습니다.

사적 정부

사용자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가?)

초판 1쇄 발행 2025년 2월 28일

지은이 엘리자베스 앤더슨
옮긴이 김중서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225-3 93320

© 김중서, 2025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사적 정부

사용자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가?)

엘리자베스 앤더슨 지음

김종서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윙킨이의 말

나는 몇 년 전에 엘리자베스 앤더슨의 이 저작에 대한 서평을 쓴 바 있고, 이하의 내용은 상당 부분 그 글에서 빌려온 것이다.^[1] 서평에서 나는 이 책의 부제를 언급하면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지만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가는 구매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 자체, 그리고 그의 삶 자체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처분해 버린다는 마르크스의 통찰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구는 달리 본 적이 없”고, 바로 “그런 감동과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아니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서평을 쓰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2]

특히 이 저작이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근로^[3]의 권리를 정한 헌

[1] 김중서, 「Elizabeth Anderson, *Private Government*에 대한 서평」, 『서울대학교 법학』 제 63권 제2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45-186쪽.

[2] 위의 논문, 146-147쪽.

[3] 나는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번역서에서는 ‘근로’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다.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의 기원과 의미 차이 등에 관한 역자의 입장은 김중서, 「노동3권 소고」, 『민주법학』 제 71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9), 특히 176-185쪽 참고.

법 제32조 제3항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의미가 사업장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참여와 결정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나의 견해^[4]를 뒷받침해 주는 매우 드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 몇 년간 자본과 노동의 관계,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사용자-노동자의 관계, 이들 관계의 형성과 결정에 있어 국가의 역할 등의 문제에 대한 ‘규범적인 인식틀’을 찾아 긴 여정을 이어 왔기에,^[5] 앤더슨의 『사적 정부(*Private Government*)』를 만난 것은 그야말로 운명과 같았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인민과 국가정부의 관계와 유사한, 일종의 예속민과 사적 정부의 관계로 바라보는 앤더슨의 시각은 하나의 거시적인,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이념형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사용자의 무제한적 권력을 책임이 부과되는 것으로, 즉 사적 정부를 공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규범적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기에, 나는 서평에 이어 다시 저작 전체를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4] 김종서, 「근로의 권리」, 『민주법학』 제73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241-282쪽, 특히 269-273쪽.

[5]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헌법을 가진 나라의 노동자가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정부에서조차도 예나 다름없이 겪어야 했던 고통, 차별과 착취, 권리 박탈, 고용불안정, 그리고 죽음을 보면서, 노동을 주제로 한 내 글쓰기는 시작됐다. 김종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법학』 제60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181-225쪽;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민주법학』 제70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9), 241-283쪽; 김종서, 「노동3권 소고」, 175-218쪽; 김종서, 「근로의 권리」, 241-282쪽; 유럽시민자유연맹 지음, 김종서 옮김,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 『민주법학』 제77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285-330쪽 등.

이 놀라운 저서는 물론 그 저자인 엘리자베스 앤더슨이라는 철학자가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였다.^[6] 상당히 저명한 철학자임에도 저자에 대한 소개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점이 아쉬워, 만용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번역에 도전하게 되었음을 먼저 밝혀 둔다. 하지만 역자가 가지고 있는 전공상의 한계 때문에 이 번역에 풍부한 배경 설명과 역주를 추가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이에 대한 독자들의 너른 이해를 부탁 드린다.

본격적인 번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자 및 저작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듯하다. 존 스튜어트 밀과 플라톤을 읽어 주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7] 1959년생 미국 철학자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미시간대학의 철학 및 여성학 연구 교수이며 정치철학, 윤리학, 그리고 페미니즘 철학을 전공했다. 2008년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된 앤더슨은 2013년에 미시간대학의 최고 교수직에 임명되었고,^[8] 『사적 정부』 저술로 2018년 프로그레스메

[6] 앤더슨에 관해 찾을 수 있었던 국내 문헌은 단 한 편이었는데, 그나마 그의 논문 「동물권과 비인간적 생명의 가치」를 비판하는 영문 논문이었다. Hyun-kyu Hwang, “Species membership in claiming rights: Critique of Elizabeth Anderson’s essay “Animal rights and the values of nonhuman life””,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9, No. 2 (2016), 65-92.

[7] Susan Dunne, “Glastonbury poet Ocean Vuong and Manchester philosopher Elizabeth Anderson win 2019 MacArthur ‘genius grants’”, *Hartford Courant*, 25 September 2019, <<https://www.courant.com/ctnow/arts-theater/hc-ctnow-ocean-vuong-macarthur-foundation-glastonbury-20190925-ksd55t5dbjayfpjgdXHRgshh7m-story.html>>, 검색일: 2021. 9. 19.

달(Progress Medal)을 수상했다.^[9] 수상과 관련하여 『뉴욕거』에 게재된 평에 따르면, 앤더슨은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 사회과학 및 경제학을 넘나들며 활동하면서 평등이 자유로운 사회의 토대라는 입장을 구축해 왔고, 증대하는 불평등에 맞서 좌우 양측의 사상들을 결합함으로써,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사회에 민주적 기틀을 마련”한 철학자다.^[10]

한편 『사적 정부』는 ‘인간 가치에 관한 태너 강좌’ 시리즈^[11]의 일환으로 앤더슨이 했던 두 개의 강연과, 역사학, 문학 및 정치학, 철학과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하여 제기한 논평들, 그리고 이들의 논평에 대한 앤더슨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앤더슨의 강연 내용은 매우 도발적이고 문제적인 것이기에, 각 분

[8] 앤더슨의 경력에 대해서는 <<http://www-personal.umich.edu/~eandersn/vita.htm>>, 검색일: 2021.10.20.

[9] Society for Progress, “2018 Progress Medal Laureates”, <<http://societyforprogress.org/laureates-2018.html>>, 검색일: 2023. 12. 1.

[10] Nathan Heller, “The Philosopher Redefining Equality. Elizabeth Anderson thinks we’ve misunderstood the basis of a free and fair society”, *New Yorker*, 31 December 2018,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9/01/07/the-philosopher-redefining-equality>>, 검색일: 2021. 9. 19.

[11] 인간 가치에 관한 태너 강좌(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는 1978년 미국 학자 오버트 클라크 태너에 의해 케임브리지대학 클레어 홀에서 창설된 인문학 분야의 대학 연합 강좌 시리즈다. 태너 강좌에 참여하는 대학은 9개(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하버드대학, 미시간대학, 프린스턴대학, 스탠퍼드대학, 유타대학, 예일대학)이며, 현재까지 매년 3~8개의 강좌가 진행되어 왔고, 강사진으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망라되어 있다. 몇 사람만 언급해 보자면, 칼 포퍼, 존 롤스, 아 마르티아 센, 미셸 푸코, 마이클 월저, 위르겐 하버마스, 로렌스 트라이브, 로버트 달, 움 베르토 에코, 제러드 다이아몬드, 로버트 노직, 리처드 포스너, 로베르토 움거, 마이클 샌 델 등이다. 유타대학의 태너 강좌 웹사이트, <<https://tannerlectures.utah.edu>>, 검색일: 2023. 12. 1.

야 전문가들의 논평은 조금씩 톤을 달리하긴 하지만 상당한 신랄함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의 논평과 이에 대한 앤더슨의 반론은 학술적 논쟁을 넘어서 있다고 할 만큼 격렬하다. 앤더슨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현대 주류 경제학자의 논평에 대한 앤더슨의 통렬한 반박에 상당한 놀라움을 경험할 것이며, 어쩌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적 정부』를 읽으면서 과거에 읽었던 문헌을 다시 보는 듯한 기시감을 가졌다. 첫째, 평등주의적 시장사회의 이상을 애덤 스미스와 연결시키면서 그것이 산업혁명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한 서술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국내적 및 국제적 모순들의 철학적 토대를 벤담의 공리주의 담론에서 찾고 그 극복을 위해 애덤 스미스, 특히 그의 『도덕감정론』^[12]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 베이커의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13]을 떠올리게 했다.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을 불법자금, 빈곤과 불평등, 국가 간 불평등으로 보고 그 원인을 왜곡된 철학에서 찾고 있는 베이커의 견해는 ‘좌파적’ 시장사회의 이상이 좌절된 이후에도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거나 은폐하는 공적담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앤더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둘째, 앤더슨이 언급한 ‘공산주의적 독재’의 사례들, 특히 미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상 이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은 19세

[12] 애덤 스미스 지음, 김광수 옮김, 『도덕감정론』(한길사, 2016).

[13] 레이먼드 W. 베이커 지음, 강혜정 옮김,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자유시장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치명적인 약점들』(지식의숲, 2007).

기 영국 자본주의 기업(공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묘사했던 마르크스의 『자본』^[14]과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15]의 재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아울러 논평가 코웬에 대한 앤더슨의 혹평은 고전과 경제학자들에 대한 마르크스의 신랄한 비판을 연상시킨다.

그런가 하면 앤더슨은 이 저작을 통해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실력과 태도의 전범을 보여 주었다. 합리적인 논거를 갖춘 비판은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계없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차없는 반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학문하는 사람의 겸허함과 치열함을 보았다.

감히 이 책을 번역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내가 경험했던 이런 느낌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에서였다. 이 번역서가 엘리자베스 앤더슨이라는 주목할 만한 철학자와 그 저작들에 대하여 도덕철학이나 경제철학 전공자들, 또 가깝게는 법철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하여 꼭 언급해야 할 두 사람이 있다. 내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2020년 겨울이었고, 이때는 근 2년째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 당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아내를 돌보는 일에 만 집중하던 때였다. 다행히 그해 가을부터 아내의 건강이 조금씩 좋

[14] 카를 마르크스 지음, 강신준 옮김, 『자본: 경제학 비판 I-1』(도서출판 길, 2008), 특히 제3권 제8장 참고.

[15]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이재만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라티오, 2014).

아지기 시작했고, 그나마 밤에 아내가 잠자리에 든 후에는 책을 볼 마음의 여유가 생긴 터였다. 그렇게 책을 읽다가 번역을 시작하여 이 책의 초역을 마친 것이 2021년 봄이었다. 아내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한 번역이니 꼭 출판하라고 나를 격려해 주었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출간하게 된 이 책을 받을 첫 번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아내다. 무엇보다도 수년간에 걸친 역경을 꺾었던 의지와 감사의 마음으로 잘 극복해 준 아내에게 고마움과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스승이자 친구, 동지이자 반려자인 임영순에게 내 사랑과 진심을 담은 선물로 이 책을 드린다.

사실 초역을 마쳤을 때 나는 과연 이것이 번역 출판할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내 전공 분야도 아니었을뿐더러 거칠게 말하자면 이 책은 공개 강연과 토론을 엮어 놓은 것일 뿐, 노동 분야의 여러 쟁점에 관한 정치한 이론을 담은 연구서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진보적이면서 근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노동과 관련된 연구 및 실천 활동에 진력해 온 동료 연구자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그는 ‘사회에서 시민인 노동자는 기업 내에서도 시민이어야 한다’는 1980년대 프랑스 노동개혁의 기본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노동법 연구자가 법해석과 정책에 주로 집중하는, 군대로 치면 보병형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책과 같은 내용의 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므로 번역을 잘 마무리해서 꼭 출간했으면 좋겠다는 격려를 보내 주었다. 그의 진지한 평가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출간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는 슬프게도 1년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고(故) 조임영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 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번역서의 출간을 맡아 준 서울
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1월

김중서

차례

	옮긴이의 말	v
	서론 _스티븐 마케도	xv
	저자 서문	xxxi
	1. 시장이 “좌파적”이었을 때	1
	2. 사적 정부	51
[논평]	3. 수평파로부터 배운다? _앤 휴스	99
	4. 시장 합리화 _데이비드 브롬위치	119
	5. 사람 구함: 부하 직원 _니코 콜로드니	133
	6. 결국 노동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_타일러 코웬	149
[답변]	7. 논평자들에 보내는 답변 _엘리자베스 앤더슨	165
	주	199
	찾아보기	223

일러두기

1. 원저는 Elizabeth Anderson, *Private Government: How Employers Rule Our Lives (and Why We Don't Talk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이다.
2. 국문 책제목은 『』로, 국문 논문제목은 「」로, 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영문 논문제목은 “ ”로 표시했다.
3. 원문의 이탤릭체에 의한 강조 부분은 굵은 활자로 표시했다.
4. 미주는 모두 원주이며, 각주는 모두 옮긴이주이다.
5. 색인은 원문에 수록된 것에 옮긴이가 일부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책의 중심을 이루는 두 강연은 사기업과 노동자의 자유 및 존엄 사이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강연은 자유시장 진보주의(free market progressivism)^[1]의 수 세기에 걸친 쇠퇴를 개괄적이지만 생생한 붓질로 묘사한다. 이에 따르면 17세기 중엽의 영국 내전 시기를 시작으로 200년 후 에이브러햄 링컨 때까지는 자유시장에 신분과 지위의 평등을 신장시킬 능력이 있다고 보는 낙관주의를 믿을 근거가 충분했다. 그 낙관주의는 산업혁명과 함께—그리고 후술될 원인들 때문에—사업장에서 불평등과 지배가 강해지면서 비관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자영의 기회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권위에 대항할 노동자의 대안은 더 줄어들었다. 그 권위의 폭은 극단적으로 넓어서,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발언과 행위를 이유로 해고될

[1] 자유시장은 보수주의(conservatism)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케도는 첫 번째 강연에서 시장을 좌파적이라고 지칭한 앤더슨에 호응하여 자유시장을 진보주의와 결합시키고 있다.

위험에 노출되었다. 오늘날의 학자, 지식인 및 정치가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유시장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사적 부문 노동자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고, 사적 부문 노동자가 종속되어 있는 자의적이고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눈감고 있다.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2014년 초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앤더슨의 중요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인간 가치에 관한 태너 강좌’의 주제다. 앤더슨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널리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윤리학과 경제학에서 가치(Value in Ethics and Economics)』(1993)와 『통합의 명령(The Imperative of Integration)』(2010)의 저자다. 수많은 논문 중에서도 선구적인 「평등의 핵심은 무엇인가?」(1999)^[2]는 오로지 물질적 분배상의 불평등에만 주목하던 사회철학자들의 관심을 사회관계에서의 불평등으로 전환시켰다. 권위(authority), 존경(esteem) 및 지위(standing)의 사회적 평등에 대한 앤더슨 교수의 오랜 관심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을 이룬다.

두 개의 강연 내용에 이어서 역사, 문학, 정치 이론, 경제학 및 철학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처음에는 토론의 형태로 내놓고, 이후 출판을 위해서 수정한 4편의 날카로운 논평이 실려 있다. 이 책은 비판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앤더슨 교수의 답변으로 마무리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기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겠다.

[2] Elizabeth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9, No.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287–337.

첫 번째 강연에서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자유시장의 정치적·경제적 이론이 오늘날에는 자유지상주의자들^[3] 및 정치적 우익을 연상시키지만 본래 17세기 영국의 수평파(Levellers)^[4]부터 미국의 남북전쟁까지, 평등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로서 창안되었으며, “시장사

[3] libertarianism이 국내에서는 ‘자유지상주의’로 번역되고 있지만 주장하는 내용의 요체를 살펴보면 ‘절대적 재산권론’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는 비판도 있다. 김도균,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아카넷, 2021), 295쪽의 주 4.

[4] 수평파의 성립과 활동 및 이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교도혁명의 와중에 대체로 인민주의적 경향을 드러낸 집단이었던 수평파는 종교적으로는 독립교회파에 속했다. 처음에는 시민혁명의 지도자 크롬웰에게 혁명의 완수를 기대했던 수평파는 곧 진정한 의미의 혁명을 실천하기 위해 하급병사를 중심으로 평의회를 구성하고 1647년부터 1650년까지 정당과 같은 뚜렷한 조직체를 가지고 움직였으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모든 사람이 각기 제 땅을 소유하고 모든 직인이 제 생산수단을 가지고 모든 상인이 자급하는 세상이었다. 그들은 자연권과 개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민주권을 강조하여 여러 정치적 개혁안을 제시했고 세 차례에 걸쳐 인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을 발표했다. 그들은 온갖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려 했다고보다는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의 정치적 특권과 독점을 반대하고, 소자산계급의 법 앞에 평등과 정치적 평등을 옹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는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개인주의자였고, 목표 면에서는 경제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었으며, 급진민주주의자들로 이해된다. 이처럼 주로 정치적인 것에 목표를 두었던 수평파와 달리 뒤에 출현한 디거스(the Diggers)는 빈민 대중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이들의 입장은 공상적 사회주의의 시초로 이해되며, 경제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허구적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수평파의 입장과 차별화하여 스스로 ‘진정한 수평파(True Levellers)’라고 불렀다. 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129-131쪽. 그 밖에 수평파(운동)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는 이승영, 『17세기 영국의 수평파운동』(민연, 2001); 임희완, 『영국혁명의 수평파운동』(민음사, 1988) 참고. 특히 이승영의 저작에는 3차에 걸쳐 채택된 인민협정 전문이 수록되어 있고(133-143, 370-373, 374-384쪽), 임희완은 존 릴번, 윌리엄 월윈, 토머스 프린스 및 리처드 오버턴 등 수평파 지도자들의 사상과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89-100쪽). 그런가 하면 17세기 영국 청교도혁명 당시 공화파 군인 내부에서 사적 소유권의 우선성을 주장한 독립파와 인민주권론의 우선성을 주장한 수평파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서, 사적 소유제와 인민주권론의 원리상 충돌의 기원을 찾는 이도 있다. 최형익, 「민주공화정의 정치이론: 인민주권론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5호(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142-170쪽, 특히 149-150쪽 참고.

회(market society)”는 종종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회”로 이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앤더슨은 특히 수평파, 존 로크, 애덤 스미스 및 토머스 페인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초기 자유시장 평등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능수능란하게 그려낸다. 경제적 자유와 자유시장은 경제, 정치, 종교, 사회 및 가족 내 사회적 위계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요약한다.

경제적 독점에 대한 반대는 길드뿐만 아니라 교회 및 인세의 독점, 부자에 의한 투표의 독점, 그리고 남성에 의한 가족권력의 독점 등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독점을 폐지하고자 하는, 더 넓은 의제의 일부였다. 독점을 폐지하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인격적 독립을 획득하고 주인 없는 남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에 와서야 자유시장 이론은 그 초기의 평등주의적인 정박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페인의 뒤를 이어 자유시장 사상가들은 점점 더 국가가 특별한 이익의 이름으로 권력을 남용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또 다른 원인은 산업혁명이었다.

17세기 및 18세기에 수평파 존 릴번과 위대한 정치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같은 사상가들은 자유시장에서 활동하는 자유인이 독립적 장인, 상인 또는 소규모 제조기업 참여자일 것으로 가정했다. 스미스가 분업의 예로 들었던 “핀 공장”에는 10명이 고용되어 있었다. 토머스 페인과 미국의 건국자들은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지지했는데, 이들은 인구의 대다수를 자영업자로 가정했다. 18세기 후반

및 19세기 초 미국에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때문에 “자유시장에서 임금이 높았고”, 백인 남성의 “거의 모두에게 자영업은 당장이라도 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 자유시장과 독립을 동일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더욱이 옛날의 자유시장 평등주의자들은 정책 제안에 있어서 교조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스미스와 페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공교육을 옹호했고, 페인은 보편적인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5] 체계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노동을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해 노령연금, 유족수당 및 장애급여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제안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자유시장 평등주의를 요약하면서 앤더슨은 이렇게 말한다.

스미스의 가장 큰 희망, 즉 수평파에서 차티스트까지, 페인에서 링컨까지 급진 노동활동가들에 의해 공유되었던 희망은 시장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면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사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생산활동을 규율하는 데 자질과 판단력을 발휘할 자영업자 계급이 극적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이었다.

산업혁명은 자유시장 평등주의자들이 의존하고 있던 가정들을 극

[5] 성인이 된 시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유의미한 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일시금을 일회 지급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액커만과 알스토티가 주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루스 액커만·앤 알스토티·필리페 반 빠레이스 지음,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분배의 재구성』(나눔의집, 2010) 참고.

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규모의 경제는 소경영자의 경제를 압도했”고, “자영업의 기회는 극적으로 위축되었다.” 또 산업혁명은 “제조업에서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간극을 극적으로 넓혔”고, 거기에 더하여 “회사^[6] 내의 서열은 그 단계가 크게 증가했다.”

산업혁명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가져온 급진적 변화들, 그리고 그에 따른 자유시장 이론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정치적 담론을 병들게 하고 있는 자유지상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공생관계”를 야기했다고 앤더슨은 말한다.

두 번째 강연에서 앤더슨은 중심적이면서도 가장 흥미를 끄는 주장을 펼친다. 근대적 산업 기업은 자의적이고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사적 정부” 및 “독재”의 체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노동자는 대부분 그들의 노동생활에서 공산주의적 독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대개 그런 독재는 노동자의 근무 외 생활—그들의 정치 활동, 발언, 성적 파트너의 선택, 기분전환용 약물 사용, 음주, 흡연 및 운동—까지도 규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무 외 생활을 규율하는 이러한 권한을 불규칙하게, 자의적으로, 그리고 예고 없이 행사한다. (...) 근무시간 외 발언에 대해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보호받는 것은 전체 미국 노동자의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6] firm, company, corporation 등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기업’ 또는 ‘회사’로 번역했다.

저자 및 기고자 소개

엘리자베스 앤더슨(Elizabeth Anderson)은 미국 미시간대학의 철학 및 여성학 연구 교수다. 2008년 미국예술과학원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2013년 미시간대학의 최고 교수직인 John Dewey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of Philosophy and Women's Studies로 지명되어 그 지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사적 정부』(2017)의 저술로 2018년 진보협회(Society for Progress)로부터 프로그레스메달을 수상하는 한편, 이후 맥아서 펠로우 프로그램의 “천재 지원금”을 받았다. 2020년 *Prospect Magazine*에서 선정하는 50인의 세계 최고 사상가들에 포함되었으며, 2021년에는 미국 철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저서 『윤리학과 경제학에서 가치(Value in Ethics and Economics)』(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통합의 명령(The Imperative of Integration)』(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을 비롯해 평등주의, 민주주의 및 시장사회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가장 최근 저술로는 『강탈당한 노동: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노동윤리가 노동자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고 노동자는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가(Hijacked: How Neoliberalism Turned the Work Ethic against Workers and How Workers Can Take It Back)』(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가 있다.

데이비드 브롬위치(David Bromwich)는 미국 예일대학 영문학과와 Sterling Professor다. *Dissent*, *The Nation*, *The New York Review of Books*와 그 밖의 저널에 정치학과 문화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에드먼드 버크의 지적 생애: 숭고함과 아름다움에서 미국 독립까지(The Intellectual Life of Edmund Burke:

From the Sublime and Beautiful to American Independence)』(Belknap Press, 2014), 『말은 어떻게 사건을 일으키는가(How Words Make Things Happen)』(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미국의 몰락: 트럼프 시대,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왔는가(American Breakdown: The Trump Years and How They Befell Us)』(Verso Books, 2019), 『정치 저작 선집(Writing Politics: An Anthology)』(NYRB Classics, 2020) 등 여러 책을 썼다.

타일러 코웬(Tyler Cowen)은 미국 조지메이슨대학에서 Holbert L. Harris Chair of Economics를 맡고 있으며 공공선택연구센터의 경제학 교수다. 또한 자유시장 지향의 싱크탱크 Mercatus Center의 센터장이기도 하다. 경제학 블로그 “Marginal Revolution”의 기고자다. 최근에 출간한 저서로는 『자만족적 계급: 미국적 꿈의 자멸적인 추구(The Complacent Class: The Self Defeating Quest for the American Dream)』(St. Martin’s Press, 2017), 『완강한 지지: 자유롭고 번영하며 책임있는 개인들의 사회를 위한 비전(Stubborn Attachments: A Vision for a Society of Free, Prosperous, and Responsible Individuals)』(Stripe Press, 2018), 『대기업: 미국의 반영웅에게 보내는 러브레터(Big Business: A Love Letter to an American Anti-Hero)』(St. Martin’s Press, 2019), 『재능: 전 세계의 정력가, 창의적인 사람과 승리자를 확인하는 법(Talent: How to Identify Energizers, Creatives, and Winners Around the World)』(Daniel Gross 공저)(St. Martin’s Press, 2022)이 있다.

앤 휴스(Ann Hughes)는 1995년에 근대 초기 역사학 교수로 영국 킬대학에 처음 부임해 인문학연구소 소장,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에 은퇴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가 되었다. 가장 최근 저작으로 『젠더와 영국 혁명(Gender and the English Revolution)』(Routledge, 2011)이 있다.

니코 콜로드니(Nico Kolodny)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철학 교수다. 호 주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하버드대학 철학과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도덕 및 정치 철학이다. 최근의 저서로는 『서열: 철학적 문제로서 사회적 위계(*The Pecking Order: Social Hierarchy as a Philosophical Problem*)』(Harvard University Press, 2023)가 있다.

스티븐 마케도(Stephen Macedo)는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대학인간가치센터 소속 Laurance S. Rockefeller 정치학 교수다. 프린스턴대학에서 법과 공공사무에 관한 프로그램의 창립 책임자였고(1999-2001), 대학인간가치센터 소장(2001-2009)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자유주의의 미덕: 자유 헌정주의에서 시민성, 미덕과 공동체(*Liberal Virtues: Citizenship, Virtue, and Community in Liberal Constitutionalism*)』(Oxford University Press, 1990), 『다양성과 불신: 다문화 민주주의에서 시민교육(*Diversity and Distrust: Civic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Democracy*)』(Harvard University Press, 2000)이 있고, 공저로 『위기의 민주주의: 정치적 선택은 어떻게 시민 참여를 잠식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무엇을 할 수 있는가(*Democracy at Risk: How Political Choices Undermine Citizen Participation, and What We Can Do About It*)』(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5)와 『방금 결혼했어요: 동성 부부, 일부일처제와 혼인의 미래(*Just Married: Same-Sex Couples, Monogamy, and the Future of Marriage*)』(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등이 있다.

미국 노동자 4명 중 1명은 자신의 직장이 '독재'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야말로 우리 삶에 대하여 권위주의적 권력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사적 정부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많은 사용자는 근무 중에 노동자의 말, 복장, 태도를 세밀하게 규제할 뿐 아니라 정치적 발언, 오락 활동, 식생활 등 근무 외 삶까지도 시시콜콜 지배하려 한다. 이 책은 마치 자유시장이 노동자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담론 구조를 비판하고, 노동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업장 지배 구조를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값 34,000원

ISBN 978-89-521-3225-3